

#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

## 인플레이션 추가 완화 기대에도 불확실성의 그늘

-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; 나스닥 -0.5%, 러셀2000 -0.4%
-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아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
- 미중 무역 협상 세부 사항 부재 및 중동 긴장 유지로 지정학적 불안감 증폭

### Summary

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함.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보합세를 기록하며, 42,865.77에 머무름. S&P 500 지수는 전일보다 0.27% 하락하였고, 나스닥 종합지수는 0.50% 하락하며 19,615.88에 장을 마침.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.38% 하락하였음. 이날 발표된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년 동기 대비 2.4% 상승하며 시장 예상을 하회하여,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고,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였음.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이 큰 틀의 합의에 성공했음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, 이란과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증대를 더하며 뉴욕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. 더불어,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인해 4% 이상 급등하였고, 이로 인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음. 다우지수 내 주요 종목 중에서는 기술주가 크게 하락세를 보이며, 애플과 엔비디아 등의 주가가 하락을 주도함.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관망세를 취하고 있으며,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신호를 주목하고 있음. (다우 -0.00%, 나스닥 -0.50%, S&P500 -0.27%, 러셀2000 -0.38%)

### 특징종목

애플 (-1.9%)은 최근 열린 WWDC 2025에서의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함.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대규모 인공지능 관련 발표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. 아마존 (-2.0%)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, 주요 유통업체의 사이버 공격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하락함. 구글 (-0.7%)은 OpenAI와의 데이터 센터 파트너십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으로 인해 주가 하락세를 피하지 못함. 인텔 (-6%)은 맥에서의 지원 중단 가능성 소식과 AMD와의 심화되는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주가 하락폭이 컸음. 메타 (-1.2%)는 대규모 AI 투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투자 사기 문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. 반면, 테슬라 (+0.1%)는 로보택시 론칭 계획 발표로 인해 소폭 상승했으며, 마이크로소프트 (+0.4%)는 AI 도우미 'Copilot' 사용자 확장 계획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가가 상승함.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(+5%)는 스트리밍과 케이블 TV 사업 분할 계획 발표로 주가가 상승해 주목받았음. 반면, 유나이티드 항공 (-5.5%)은 비행기 Starlink Wi-Fi 사용 중단 등 문제들로 급락했으며, 아틀라시안 (-5.4%)은 클라우드 사업 모델 전환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으로 주가가 하락함.

팔란티어(+2.7%)는 연방 정부와 AI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에 대한 1억 달러 이상의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함. 또한 글로벌 제조 기업 Fedrigoni와의 다년간 AI 파트너십 발표로 시장 입지를 더욱 강화했음. 제너럴모터스(+1.9%)은 미국 내 제조업 확장을 위해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혀 투자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음. 이로 인해 GM의 국내 제조 역

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 반면, 추이(-11%)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, 연간 전망이 부진하여 주가가 급락했음.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가중시켰음. 깃랩(-11%) 역시 1분기 실적 발표 후 실적이 예측에 미치지 못하자 시장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. 혁신적인 AI 도입 전략에도 불구하고, 예측치를 밑도는 실적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음.

### 외환 및 상품 동향\* 6시 10분, KST 기준

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.43%로 약세를 보임.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임. 미국 달러 인덱스는 98.63을 기록, 약세 흐름을 지속하며 3년 내 최저점인 98.0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. 이러한 흐름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달러 매도 심리가 강화된 데 있음.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/달러 환율이 1.15로 하루 동안 0.57%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음. 이는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에 의해 유로화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.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 가격이 하루 동안 5.13% 상승한 68.31달러를 기록,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에너지 주도의 주식 시장 강세에 힘입은 결과임. 금 가격은 0.80% 상승하며 온스당 3354.82달러를 기록하며,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가 이어졌음. 그러나 주요 금속인 구리와 알루미늄은 각각 1.69%와 1.03%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음. 이는 전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 수요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것임.

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(AI)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.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.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,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<https://securities.miraeasset.com>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